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3 No.21

對터키 수출, 한·터키 FTA로 순풍에 돛 달다

- 한·터키 FTA발효 1주년 성과 -

2014년 4월

이혜연 연구원

명진호 수석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요 약>

최근 터키 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터키 FTA 발효 후('13년 5월~'14년 3월) 양국 교역은 35.2%(한국의 對터키 수출 38.0%, 수입 14.9%)나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터키 시장 점유율도 반등에 성공했다.

주요 산업 가운데 가장 수출 확대 성과가 두드러진 것은 석유화학이었다. 석유화학 제품에 부과되던 6.5% 관세가 발효 즉시 대부분 철폐된 것에 힘입어 FTA 이후 對터키 수출 증가율이 107.1%에 달한 것이다. 전기전자(28.2%)도 FTA 효과를 바탕으로 현지 가전업체를 상대로 TV 부분품 수출을 늘리며 호조를 보였다. 기계류(25.3%)는 관세 인하 폭이 1.7~2.7%로 크지 않지만 제품의 단가가 높아 FTA가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25.8%) 역시 FTA 발효 후 對터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 위치한 부품 업체의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터키 현지에 진출한 우리 완성차 기업의 비용절감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지 진출 공장의 증설에 따라 완성차 수출 보다 자동차 부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18.5%)의 경우 FTA 효과에 힘입어 섬유의류 강국인 터키를 상대로 직물 등 원부자재 수출을 확대할 수 있었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은 한·터키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향후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터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는 FTA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지 진출 기업들은 제조업 분야의 부품 공급 계약은 장기 계약이 많은 만큼 당장 한국產으로의 전환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FTA 관세인하 폭이 커지는 만큼 향후 한국產으로의 거래선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향후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은 더욱 확대·다양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4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비스·투자 협정은 앞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 개선 및 우리 기업 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 한·터키 FTA 발효 이후 교역 및 투자 동향

1. 한·터키 교역 동향

□ 최근 터키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한·터키 FTA를 계기로 양국 교역은 크게 증가

○ 우리나라의 對터키 교역은 FTA 발효 이후('13년 5월~'14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수출 38.0%, 수입 14.9% 증가)

－ FTA 발효 전 3년간 양국 교역 증가율은 연간 19.1% 수준이었으나 FTA 이후 증가폭이 35.2%로 큰 폭으로 확대

－ 수출의 경우도 FTA 이후 증가율이 38.0%에 달해 발효 전 3년간의 수출 증가율 19.6%의 두 배에 가까움

<한국의 對터키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3년전 연평균('10-'12)		발효 1년전 ('12.5-'13.4)		발효 1년차 ('13.5-'14.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4,458	19.6	4,536	-10.9	5,560	38.0
수입	498	15.8	629	-20.4	634	14.9
교역	4,956	19.1	5,165	-12.2	6,194	35.2
수지	3,960	-	3,907	-	4,926	-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 FTA 이후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 및 수입 증가는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 및 수입 성과를 큰 폭으로 상회

○ FTA 발효 1년 차('13년 5월~'14년 3월)의 對터키 수출 증가율은 38.0%에 달하여 같은 기간 對세계 수출 증가(2.8%)는 물론 우리의 주요 수출 상대인 중국(6.9%), 미국(8.8%)으로의 수출 성과를 큰 폭으로 앞섰음

- FTA 발효 1년 전 對터키 수출 증가율이 -10.9%로 對세계 수출증가율 (-1.5%)을 큰 폭으로 하회했던 것과 비교할 때 수출 증대 효과가 더욱 두드러짐

<한국의 對세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발효 3년전 연평균('10-'12)		발효 1년전 '12.5-'13.4		발효 1년차 '13.5-'14.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세계	523,155	14.7	548,405	-1.5	516,406	2.8
터키	4,009	19.6	4,536	-10.9	5,560	38.0
중국	128,448	15.7	138,157	3.1	134,719	6.9
미국	54,850	15.8	57,830	-2.8	57,111	8.8
일본	35,551	21.2	37,495	-6.4	31,276	-3.4
ASEAN	68,047	24.5	82,138	11.1	77,792	3.5
EU	51,303	1.9	48,549	-6.4	46,182	5.0
GCC	12,329	15.0	19,466	7.8	16,485	-8.2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 對터키 수입 역시 FTA 발효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4.9%의 증가율을 보여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
- 對터키 수입은 연간 6억 달러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FTA 이후 빠른 증가를 보임
- 특히 원유 조달처인 GCC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하면 對터키 수입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 FTA 발효 3년 전 및 발효 1년 전의 한국의 對터키 수입증가율은 對세계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한·터키 FTA 이후 이를 상회
- 특히 FTA 발효 1년 전 한국의 對터키 수입은 20.4% 감소하여 對세계 수입 증가율(-3.5%)을 크게 밑돌았음

<한국의 對세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발효 3년전 연평균('10-'12)		발효 1년전 '12.5-'13.4		발효 1년차 '13.5-'14.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세계	489,737	17.2	515,338	-3.5	474,603	0.6
터키	498	15.8	629	-20.4	634	14.9
중국	53,062	14.2	81,101	-5.1	76,672	4.2
미국	39,338	14.3	41,612	-10.6	38,975	2.5
일본	61,601	9.2	62,956	-7.6	52,320	-8.8
ASEAN	45,813	15.1	51,331	-3.9	49,902	4.5
EU	42,189	16.0	52,643	8.2	52,931	9.9
GCC	79,126	28.1	104,789	3.0	97,691	11.3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net)

□ 하락세를 보이던 터키 수입시장內 한국產 점유율이 FTA 이후 반등에 성공

○ '11년 2.61%를 기록했던 터키 수입시장內 한국產 점유율은 '12년 2.39%로 하락 했으나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점유율이 2.42%로 반등에 성공 했으며 '14년 들어서도 2.84%(1~2월)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터키 수입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냄

* 일본 : '11년 1.77% → '12년 1.52% → '13년 1.37% → '14.1~2월 1.22%

<국가별 터키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

2011		2012		2013		2014.1-2월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러시아	9.97	러시아	11.26	러시아	9.96	러시아	11.97
독일	9.54	독일	9.05	중국	9.81	중국	10.67
중국	9.00	중국	9.00	독일	9.62	독일	8.72
미국	6.65	미국	5.97	미국	5.00	미국	5.41
한국	2.61	한국	2.39	한국	2.42	한국	2.84

자료 : Global Trade Atlas

2. 한·터키 투자 동향

□ 터키에 유럽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를 세우는 동시에 터키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우리 기업의 對터키 투자도 활발

- 우리 기업의 對터키 투자는 '11년 1.44억 달러, '12년 2.95억 달러, '13년 1.81억 달러를 기록
- 2013년 한국의 對터키 투자 신고건수는 69건으로 한국의 터키 투자 사상 최대 건수를 기록
- 이에 반해 터키의 對한국 투자는 아직 규모가 작은 수준

<최근 한·터키 투자동향>

(단위 : 건, 백만 달러)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적
한국→터키	신고건수	34	52	32	56	57	69	435
	신고금액	89.8	247.3	66.7	144.2	295.0	181.0	1,407.8
터키→한국	신고건수	7	4	10	7	9	8	82
	신고금액	1.3	0.2	2.0	0.9	2.1	2.2	14.8

주 : 누적은 '13년 말까지의 양국간 투자의 총 합계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의 對터키 투자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의 對터키 투자는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집중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서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전문·기술 서비스,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

<한국의 對터키 업종별 투자>

(단위 : 백만 달러)

업종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설업	-	12.0	6.6	7.6	140.7	53.0
광업	-	56.0	5.0	-	-	-
금융·보험업	-	-	-	-	-	50.5
도·소매업	28.2	4.9	1.0	1.6	9.7	31.1
부동산·임대업	-	-	0.3	-	0.2	-
사업시설·지원 서비스	-	-	-	-	-	-
운수업	-	-	-	-	1.7	0.1
전기·가스·수도사업	-	-	-	-	-	0.1
전문·기술서비스	-	-	0.1	0.5	0.5	1.7
제조업	61.6	174.4	53.7	133.5	133.1	28.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	-	-	-	1.0	9.0	16.2
합계	89.8	247.3	66.7	144.2	295.0	181.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II. 한·터키 FTA 산업별 수출 성과¹⁾

1. 전기전자²⁾

□ FTA 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제품의 對터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전기전자제품의 對터키 수출(터키의 對한국 수입)은 한·터키 FTA 발효('13.5월~'14.2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28.2%의 높은 증가율 기록
- FTA 발효로 터키측 관세가 즉시 철폐된 TV 부분품(HS코드 85299092), 전자동 및 반자동식 용접기기(HS코드 85152100)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 터키의 TV 생산 확대로 TV 관련 부품 수출이 확대
- 전기케이블(HS코드 85446090), 무선원격조절기기(HS코드 85269200), 텔레비전 부분품(HS코드 85299065) 등은 수출 금액은 다소 작지만 관세 철폐 및 인하로 수출 증가율이 네 자릿수 이상을 보이며 대폭 증가

<터키의 對한국 전기전자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T ³⁾	분류	기준 관세 (%)	FTA 양허 (년)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85	전기전자			1,214.5	1,329.7	1,241.3	28.2
85287220	컬러TV	14	7	523.6	537.2	421.1	-20.2
85299092	텔레비전 부분품	5	0	105.2	345.2	398.0	265.3
85152100	전자동 및 반자동식 용접기기	2.7	0	6.0	4.3	19.9	231.2
85369085	전기회로기기	2.3	5	3.6	8.1	9.0	197.2
85446090	전기 케이블	3.7	7	0.05	1.2	1.5	2,629.8
85269200	무선원격조절기기	3.7	0	0.1	1.6	2.2	1,525.3
85299065	텔레비전 부분품	3	0, 5	2.0	11.0	11.8	1,061.0

주1 : 터키의 HS 코드 8단위 기준(HST)

주2 : 발효 1년차 수입액은 '13.5-14.2월까지의 금액을 포함, 증가율은 전년동기('12.5-'13.2월) 대비 증가율

자료 : 한·터키 FTA 양허표, Global Trade Atlas

1) 한·터키 FTA 발효('13년 5월 1일) 이후인 '13.5월~ '14년 2월까지 10개월(현재 확보 가능한 터키의 최신 수입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2) HS 85류를 전기전자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3) 동 보고서의 HS 코드는 터키의 HS 코드인 HST 8단위를 기준으로 작성

□ 특히, 터키 로컬 가전 업체의 생산 공정 고도화 및 FTA 관세 혜택의 영향으로 TV 관련 부분품의 對터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터키에는 아르첼릭(Arcelik), 베스텔(Vestel) 등 로컬 가전업체들이 활발한 생산을 통해 터키 내수시장 판매 뿐 아니라 EU 및 중동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최근 기술 발전을 꾀하기 위해 TV의 모듈뿐만 아니라 모듈 이전의 부품을 수입하는 단계로 공정이 고급화되고 있어 TV 관련 부분품의 對터키 수출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① 텔레비전 부분품(HS 85299092)

- 한·터키 FTA를 통해 5%의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된 텔레비전 부품의 수출은 3.98억 달러(발효 1년차, '13.5월~'14.2월)로 전년 동기에 비해 265.3% 증가
- 우리나라 텔레비전 부분품의 터키 수입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점유율 1위인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대만 및 일본과는 격차를 벌임

<터키의 텔레비전 부분품(HS 85299002)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점유율(%)		
						'12년	'13년	'14년 1-2월
-	세계	873.5	1,225.1	1,086.6	4.3	100.0	100.0	100
1	중국	438.7	746.9	612.9	9.8	50.2	61.0	54.9
2	한국	105.2	345.2	398.0	265.3	12.1	28.2	35.5
3	폴란드	218.5	88.8	32.0	-87.7	25.0	7.3	4.26
4	대만	101.0	26.7	29.7	-71.2	11.6	2.2	3.85
5	말레이시아	1.6	10.4	8.0	153.0	0.2	0.9	0.95
6	일본	2.9	2.1	1.7	-40.3	0.3	0.2	0.17

자료 : Global Trade Atlas

② 텔레비전 부분품(HS 85299065)

- 다른 텔레비전 부분품(HS 85299065) 역시 한·터키 FTA 발효 1년차('13년 5월~'14년 2월)에 전년 동기 대비 1,061.0%라는 높은 증가율 달성

- '12년 3.7%에 불과하던 점유율이 '13년 35.4%까지 상승해 우리나라는 중국을 앞지르고 터키시장 내 점유율 1위국이 됨

<터키의 텔레비전 부분품(HS 85299065)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점유율(%)		
						'12년	'13년	'14년 1~2월
-	세계	53.0	31.2	27.7	-4.5	100.0	100.0	100.0
1	중국	15.5	13.3	11.1	0.2	29.2	42.5	32.9
2	한국	2.0	11.0	11.8	1,061.0	3.7	35.4	33.5
3	말레이시아	5.7	1.8	1.1	-74.8	10.8	5.6	4.3
4	인도네시아	11.5	1.3	0.4	-94.4	21.8	4.0	0.4
5	스웨덴	9.3	0.6	0.4	-62.8	17.6	2.0	1.1
6	미국	0.7	0.5	0.6	4.0	1.2	1.6	7.2
7	일본	0.6	0.5	0.2	-2.7	1.2	1.5	0.9
8	대만	2.9	0.4	0.4	-42.4	5.6	1.4	1.6

주 : 순위는 FTA 발효 1년차('13.5~'14.2월) 기준

자료 : Global Trade Atlas

2. 석유화학⁴⁾

□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주요 품목의 관세가 대부분 즉시 철폐됨에 따라 FTA 혜택을 바탕으로 對터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FTA 발효로 석유화학 제품에 그동안 부과되던 6.5%의 터키측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13.5월~'14.2월 對터키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7.1% 늘어나는 성과를 나타냄
- 폴리에틸렌(HS코드 39012090), ABS수지(HS코드 39033000), 플라스틱판(HS코드 39204310) 등 석유화학의 주요 품목 수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
- 또한 석유화학 제품 가운데 FTA 이전에는 수출 규모가 미미했으나 FTA 발효 이후 수출이 대폭 늘어난 품목이 다수 나타나 석유화학의 FTA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됨

<터키의 對한국 석유화학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T	분류	기준 관세 (%)	FTA 양허 (년)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29, 39	석유화학			618.3	944.7	1,113.5	107.1
39012090	폴리에틸렌	6.5	0	22.9	131.6	131.1	393.9
39033000	ABS 수지	6.5	0	105.1	128.2	115.1	31.7
39204310	플라스틱판	6.5	0	83.9	91.0	84.7	34.9
39021000	폴리프로필렌	6.5	5	10.6	57.4	57.3	333.6
39031900	폴리스틸렌	6.5	0	20.2	49.8	53.1	236.3
39076020	폴리에스테르 수지	6.5	0	0.01	20.6	27.5	280,753.0
29173600	테레프탈산과 그 염	6.5	0	0.1	0.0	90.9	46,872.6
29161200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6.5	0	0.15	0.03	8.9	6,375.7
29291000	이소시아네이트	6.5	0	0.08	0.3	38.5	6,084.9
39073000	에폭시수지	6.5	0	7.2	15.5	14.8	109.9

주1 : 터키의 HST 코드 8단위 기준

주2 : 발효 1년차 수입액은 '13.5-14.2월까지의 금액을 포함, 증가율은 전년동기('12.5-'13.2월) 대비 증가율

자료 : 한·터키 FTA 양허표, Global Trade Atlas

4) HS 29류와 39류를 석유화학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폴리에틸렌(HS코드 39012090)의 경우 발효 1년차('13.5월~'14.2월)에 전년 동기 대비 393.9%의 증가율을 보임
- 중동産 및 EU産에 밀려 하락세를 보였던 폴리에틸렌 점유율도 FTA의 혜택을 통해 확보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4년 초에는 점유율이 12.24%까지 늘어남

<터키의 폴리에틸렌(HS 39012090)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점유율(%)		
						'12년	'13년	'14년 1-2월
-	세계	1,119.6	1,214.0	990.2	4.1	100	100	100
1	사우디아라비아	305.6	288.6	248.7	-0.1	27.29	27.29	25.97
2	이란	232.2	197.0	156.1	-16.7	20.74	20.74	17.78
3	한국	22.9	131.6	131.1	393.9	2.04	2.04	12.24
4	벨기에	43.6	63.1	50.6	21.0	3.89	3.89	5.6
5	헝가리	27.1	52.8	42.4	59.5	2.42	2.42	2.75
6	이탈리아	53.0	54.2	37.5	-20.6	4.73	4.73	3.5
7	카타르	30.9	38.0	34.6	21.4	2.76	2.76	3.7
8	스페인	34.6	37.7	32.9	6.6	3.09	3.09	3.16
9	러시아	10.1	33.8	30.3	332.8	0.9	0.9	2.53
10	스웨덴	27.5	38.3	29.6	27.3	2.45	2.45	1.13
11	쿠웨이트	20.5	30.1	24.9	16.0	1.83	1.83	1.7
12	독일	35.5	27.5	21.6	-29.0	3.17	3.17	1.84

주 : 순위는 FTA 1년차('13.5~'14.2월) 기준

자료 : Global Trade Atlas

- 폴리에스테르 수지(HS코드 39076020)의 경우 관세 혜택을 발판으로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율이 280,753.0%에 달함
-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터키 수입시장의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등 신흥국과 중동지역에 밀려 점유율이 하락하는 상황이었음
- 하지만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들어서는 점유율이 30.59%까지 늘어나 터키 수입시장에서 2위를 차지

<터키의 폴리에스테르 수지(HS 39076020)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점유율(%)		
						'12년	'13년	'14년 1-2월
-	세계	261.0	314.9	251.7	22	100	100	100
1	중국	12.8	111.1	82.5	254	4.91	35.29	1.96
2	파키스탄	92.2	60.4	57.8	-4	35.33	19.19	63.34
3	대만	18.4	34.8	34.4	233	7.05	11.04	-
4	한국	0.0	20.6	27.5	280,753	0	6.55	30.59
5	인도네시아	17.7	23.2	18.6	-16	6.78	7.36	2.17
6	인도	1.5	9.1	9.1	494	0.59	2.9	-
7	아랍에미리트	10.7	16.3	8.8	19	4.09	5.18	0
8	말레이시아	10.3	6.1	4.9	-51	3.94	1.93	0.28
9	이탈리아	4.2	2.8	1.4	-37	1.63	0.9	0
10	이란	70.9	12.5	1.3	-97	27.17	3.98	0
11	이집트	0.1	0.7	0.8	210	0.03	0.23	1.16
12	독일	0.4	0.4	0.4	296	0.16	0.14	0.12

주 : 순위는 FTA 1년차('13.5~'14.2월) 기준

자료 : Global Trade Atlas

3. 기계류⁵⁾

□ 기계류의 경우 FTA 발효 1년차 수출 증가율이 25.3%를 기록

- 1.7~2.7%로 부과되던 기계류 관세가 FTA로 인하(즉시 철폐~3년 철폐)됨에 따라 '13.5월~'14.2월 기계류의 對터키 수출이 25.3%나 증가
- 기계류의 경우 관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제품의 단가가 높아 일반적으로 FTA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 가열 난방기 부품(HS코드 84029000), 다이캐스팅 금형(HS코드 84804900), 내연기관(HS코드 84082010), 기타 기계류(HS코드 84798997) 등 기계류 주력 수출품의 수출이 FTA 이후 호조세를 보임
- 밸브(HS코드 84818081), 액체 펌프(HS코드 84138200) 등은 규모는 작지만 FTA 이후 수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터키의 對한국 기계류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T	분류	기준 관세 (%)	FTA 양허 (년)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84	기계류			1,016.5	1,311.7	1,068.0	25.3
84029000	가열 난방기 부품	2.7	3	47.1	140.7	106.1	195.0
84804900	다이캐스팅 금형	1.7	0	4.1	52.4	41.0	1,303.5
84082010	디젤 내연기관(2,500cc 미만)	2.7	3	38.5	55.2	34.9	3.9
84073410	불꽃점화식 내연기관(2,800cc 미만)	2.7	3	21.0	45.0	32.8	36.8
84798997	기타 기계류	1.7	3	25.7	33.6	28.4	11.5
84152000	자동차용 에어컨	2.7	3	0.0	0.4	0.3	67,086.7
84818081	밸브	2.2	7	0.0	2.3	2.6	32,040.1
84138200	액체 펌프	1.7	0	0.0	0.0	0.1	20,289.3
84179000	노(爐) 부분품	1.7	0	0.1	3.2	3.1	2,665.8
84639000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	2.7	0	0.2	2.1	2.1	1,908.1

주1 : 터키의 HST 코드 8단위 기준

주2 : 발효 1년차 수입액은 '13.5-14.2월까지의 금액을 포함, 증가율은 전년동기('12.5-'13.2월) 대비 증가율

자료 : 한·터키 FTA 양허표, Global Trade Atlas

5) HS 84류를 기계류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다이캐스팅 금형(HS코드 84804900)은 對터키 기계류 수출의 약 10%(1.0억 달러)를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으로 이번 FTA 발효 이후 1,30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터키의 다이캐스팅 금형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스페인, 독일 등에 밀려 '12년에는 점유율이 8.35%에 불과했으나 FTA가 발효된 '13년에는 점유율이 전체 수입시장의 절반 이상인 54.43%까지 늘어남

<터키의 다이캐스팅 금형(HS코드 84804900)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점유율(%)		
						'12년	'13년	'14년 1~2월
-	세계	49.0	96.3	64.7	53	100	100	100
1	한국	4.1	52.4	41.0	1,303	8.35	54.43	0.69
2	일본	2.3	15.7	6.5	239	4.78	16.26	0
3	중국	5.9	6.4	5.9	53	12.12	6.64	89.09
4	미국	0.7	5.6	0.4	-93	1.35	5.79	0
5	스페인	11.1	5.0	3.6	-65	22.72	5.14	0
6	독일	10.0	3.7	1.6	-83	20.46	3.82	0.36

주 : 순위는 FTA 1년차('13.5~'14.2월) 기준

자료 : Global Trade Atlas

4. 자동차 부품⁶⁾

□ 한·터키 FTA 발효 이후 25.8%의 수출 증가율을 보인 자동차 부품은 관세 인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향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 기대

- 기어박스(HS코드 87084020), 차량용 부분품(HS코드 87082910), 운전대(HS코드 87089420) 등 자동차 부품 분야의 주력 수출품이 FTA 혜택을 바탕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
- 자동차 부품의 경우 FTA의 관세 인하가 발효 이후 7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품목들이 많아 시간이 갈수록 관세 인하 폭이 커지는 만큼 향후 FTA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이 외에도 그동안 한국산 조달 비중이 미미하던 차량용 방열기(HS 코드 87089191), 차량용 로드휠(HS코드 87087099) 등이 FTA 발효를 기점으로 수출이 급증하며 각각 1,072.9%, 427.7%의 증가율을 기록

<터키의 對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T	분류	기준 관세 (%)	FTA 양허 (년)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8707, 8708	자동차부품			227.9	288.7	243.0	25.8
87084020	기어박스와 부분품	3	7	34.9	45.8	39.4	44.1
8708291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3	0, 7	36.3	34.5	30.1	9.4
87089420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	3	7	5.5	35.7	29.9	229.7
87079090	차체부분품	4.5	7	17.5	26.2	22.6	48.2
87089191	차량용 방열기 및 부분품	4.5	7	0.0	0.2	0.2	1,072.9
87087099	차량용 로드휠 및 부분품	4.5	7	0.8	8.4	9.0	427.7
87083091	제동장치와 부분품	4.5	7	2.9	5.9	6.1	156.1
87084091	형단조 단강의 기어박스와 부분품	4.5	7	0.1	0.1	0.1	123.7
87087050	알루미늄 운전대· 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	4.5	7	0.4	0.9	0.8	105.7

주1 : 터키의 HST 코드 8단위 기준

주2 : 발효 1년차 수입액은 '13.5-14.2월까지의 금액을 포함, 증가율은 전년동기('12.5-'13.2월) 대비 증가율
자료 : 한·터키 FTA 양허표, Global Trade Atlas

6) HS 8707호, 8708호를 자동차부품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한·터키 FTA 이후 자동차 부품(HS 8708호)의 수출 증가율은 25.2%에 달해 인도(45.0%), 중국(3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성과를 거둠
-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는 터키의 對세계 자동차 부품 수입 증가율인 9.2%를 큰 폭으로 상회
-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터키의 對EU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요도 위축되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이 같은 자동차 부품(HS 8708호)의 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부품 기업의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터키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

<터키의 對세계 자동차부품(HS 8708) 수입>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10년	'11년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	세계	4,396.2	5,229.5	4,492.5	4,901.6	4,063.8	9.2
1	독일	1,043.5	1,435.8	1,153.4	1,287.5	1,043.3	6.0
2	프랑스	863.5	877.0	695.3	613.6	471.0	-15.5
3	이탈리아	448.6	547.6	433.2	504.9	424.8	18.3
4	중국	227.7	273.7	233.4	284.7	263.8	36.5
5	일본	248.6	253.2	249.7	258.7	235.7	24.5
6	체코	183.8	206.9	212.9	262.9	219.8	20.1
7	한국	206.9	231.0	207.6	260.1	219.0	25.2
8	스페인	251.4	268.3	229.5	258.6	210.8	9.5
9	인도	108.8	153.1	167.1	214.6	199.7	45.0
10	영국	194.2	238.8	216.2	203.6	158.9	-7.9

주 : 순위는 FTA 1년차('13.5~'14.2월) 기준

자료 : Global Trade Atlas

- 이에 따라 터키 자동차 부품(HS 8708호) 수입 시장에서 한국産 점유율도 상승 추세를 지속
- '10년 4.71% → '11년 4.42% → '12년 4.62% → '13년 5.31%로 점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14.1~2월에는 5.9%까지 상승

<터키의 자동차부품(HS 8708)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

순위	국가	'10년	'11년	'12년	'13년	'14.1~2월	FTA 1년차 ('13.5~'14.2)
-	세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	100.0
1	독일	23.74	27.46	25.67	26.27	25.45	25.5
2	프랑스	19.64	16.77	15.48	12.52	10.47	10.5
3	이탈리아	10.20	10.47	9.64	10.30	10.62	10.6
4	중국	5.18	5.23	5.20	5.81	6.88	6.9
5	일본	5.66	4.84	5.56	5.28	6.35	6.4
6	체코	4.18	3.96	4.74	5.36	5.08	5.1
7	한국	4.71	4.42	4.62	5.31	5.85	5.9
8	스페인	5.72	5.13	5.11	5.28	5.06	5.1
9	인도	2.47	2.93	3.72	4.38	6.05	6.1
10	영국	4.42	4.57	4.81	4.15	2.40	2.4

주 : 순위는 FTA 1년차('13.5~'14.2월) 기준

자료 : Global Trade Atlas

【참고】 對터키 승용차 수출 동향

- 對터키 주력 수출 품목인 소형차도 FTA로 관세 혜택이 기대되나 우리 완성차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로 완성차 수출 증가는 제한적이며 자동차 부품 수출이 확대
 -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의 터키 공장이 2012년 4월 대규모 증설로 인해 연간 생산 능력이 2배 증가(10만 대→ 20만 대)함에 따라 한국에서 터키로 직수출하는 물량은 감소하고 대신 터키 현지로 자동차 부품 수출이 확대되는 경향
 - 다만 완성차 관세가 10%로 높고 관세 인하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향후 FTA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한국의 對터키 승용차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T	분류	기준 관세(%)	FTA 양허 (년)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8703	승용차	-	-	419.2	328.2	265.1	-22.7
87033219	중형 디젤	10	7A·7·5	173.3	146.3	118.5	-21.7
87032210	소형 가솔린	10	7A·7	79.1	71.5	57.4	-9.9
87032319	중형 가솔린	10	7A·7·5	81.1	58.0	41.1	-27.5
87033110	소형 디젤	10	7A·7	85.5	52.3	48.1	-32.4
87032110	경차 가솔린	10	7·5	0.1	0.1	-	-

주: 7A는 비선형 관세철폐 방식. 일반적으로 FTA로 매년 관세율이 일정하게 인하되는 것과 달리 발효 시기에 따라 인하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 한-터키 FTA에서는 일부 중소형차(4개 세번) 대상으로 7년 비선형 철폐방식을 채택하고 발효 초기에 관세 인하 혜택이 크도록 설정

자료 : Global Trade Atlas

5. 섬유⁷⁾

□ FTA 관세 인하 효과를 바탕으로 주력 수출품인 화섬 및 직물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며 섬유류 전체 수출이 18.5% 늘어남

- 편직물(HS코드 60041000), 재생직물(HS코드 54082210) 등 섬유 주력품목의 수출이 FTA 발효 이후 30% 이상 늘어남
- － 섬유·의류 산업이 발달한 터키를 상대로 관련 원부자재인 직물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관세 인하폭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추가적인 FTA 효과도 기대
- 부직포(HS코드 56031310), 기타 메리야스·뜨개질 편물(HS코드 60063390) 등은 수출 규모는 작지만 FTA 발효를 기점으로 수출 증가율이 네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등 수출이 빠르게 증가

<터키의 對한국 섬유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T	분류	기준 관세 (%)	FTA 양허 (년)	'12년	'13년	FTA 1년차 ('13.5-'14.2)	증가율 (%)
52·54·55·56 ·58·59·60	섬유류			254.2	263.3	229.6	18.5
60041000	편직물	8	5	42.2	59.7	53.2	34.4
54024400	합성필라멘트사	4	5	16.3	18.6	18.9	5.9
54025200	폴리에스테르 합성 필라멘트사	4	5	24.2	21.1	16.6	2.3
54082210	재생직물	8	5	18.2	13.3	15.9	34.0
60019200	인조 파일편물	8	5	7.9	13.5	13.3	72.7
56031310	도포·피복한 인조 부직포	4.3	5	0.002	0.24	0.24	11,395.0
60063390	기타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8	5	0.03	0.91	1.04	1,906.2
56031490	기타 인조 부직포	4.3	5	0.09	0.45	0.55	625.4
56012290	방직용 섬유의 워딩과 제품	4	0	0.01	0.03	0.04	528.2
58109210	인조섬유로 만든 자수천	5.8	5	0.30	0.24	0.37	401.8

주1 : 터키의 HST 코드 8단위 기준

주2 : 발효 1년차 수입액은 '13.5-14.2월까지의 금액을 포함, 증가율은 전년동기('12.5-'13.2월) 대비 증가율
자료 : 한·터키 FTA 양허표, Global Trade Atlas

7) HS 50-56류, 58-60류를 섬유류로 분류하고 이들 중 52류, 54류, 55류, 56류, 58-60류를 바탕으로 분석

Ⅲ. 터키 진출업체의 FTA 체감효과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 조사목적: 터키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체감도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터키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에 시사점 제시
- 조사방법: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 게브제 지역 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조사 실시
 - 터키 시장 동향 및 한·터키 FTA가 미친 영향을 확인
 - 현재 서비스·투자 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터키 진출 기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터키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비책을 제시

☐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FTA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관세인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한국산 제품에 대한 터키측 수요가 증가함

[사례 1] FTA로 합성수지 시장에서 EU産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터키는 유럽 및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합성수지 시장으로 여러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한·터키 FTA로 6.5%의 관세가 대부분 즉시 철폐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짐
- 관련 물류업체 A사는 그간 현지에서 한국산 합성수지가 가격 면에서는 중국이나 중동에 밀리고 품질 면에서는 독일 등 EU산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한·터키 FTA 이후 한국산 합성수지 수입이 이전과 다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음
- 실제로 한국 석유화학 업체들의 對터키 수출 여건에 대한 문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 인하폭이 커지고 장기 계약된 부품 조달선을 바꿀 기회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FTA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사례 2]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부품 조달선 변경 검토

- 전자제품 기업인 B사는 한·터키 FTA 발효 이후 터키 현지 수입업체들로부터 한·터키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음
- 한·터키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하므로 현재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중임
 - 다만, B사의 제품 생산시 부품 계약이 장기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현재 공급받던 부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B사는 FTA를 활용하면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분명한 만큼 효과적인 FTA 활용법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사례 3] 신제품 생산시 관련된 한국산 부품 수요 증가 전망

-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C사는 향후 터키 완성차 공장에서 새로운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한국으로 거래선을 전환하는 등 FTA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많고 다른 곳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즉시 한국산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음
 - 때문에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FTA를 통해 확보한 가격 경쟁력과 함께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노력도 필요

☐ FTA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터키시장 진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또한 현재 터키와의 투자 및 서비스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 규모 및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사례 4] 한·터키 FTA 이후 터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 증가

- 홈쇼핑 시장에 진출한 D사는 터키의 홈쇼핑 시장이 초기 형성단계에 있는 만큼 성장가능성이 높아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 터키는 인구가 많고, 특히 청년층이 두터워 내수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홈쇼핑 3사가 모두 진출
- D사 역시 한·터키 FTA를 계기로 FTA를 활용한 터키 시장 공략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실제로 FTA가 발효된 2013년을 전후로 많은 기업들이 터키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2013년 7월 현재 70여개의 우리 기업이 터키에 진출

- 다만 터키 진출을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필요

[사례 5] 터키 진출을 앞둔 업체들은 현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터키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3.5배에 달하며 유럽, 이슬람 문화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세속화된 도시지역과 달리 내륙 지방일수록 이슬람 문화의 색채가 강함
- 터키에 진출한 C사와 E사는 관리 인력 및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리직의 경우에는 임금이 높은 수준이고 이직률이 높아 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터키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업체들에게 이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
 - 인력 채용 시 현장에서의 재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

IV. 결론 및 시사점

- 터키 경제의 부진으로 터키의 對세계 수입이 주춤한 상황임에도 한·터키 FTA를 바탕으로 양국의 교역은 큰 폭으로 확대
 -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은 35.2%('13.5~'14.3월) 늘어나며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같은 기간 한국의 對터키 수출은 38.0%나 늘어났고 수입도 14.9% 증가
 - FTA 이후 우리나라의 對터키 교역 증가 속도는 對세계 및 주요국과의 교역 증가를 상회하고 있으며, 터키 수입 시장에서 한국產 점유율도 반등에 성공
 - 터키 수입시장內 한국產 점유율은 '11년 2.61% → '12년 2.39% → '13년('13.5월 한·터키 FTA 발효) 2.42% → '14.1~2월 2.84%
- 한·터키 FTA 이후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 주요 산업의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 특히 석유화학은 對터키 수출 증가율이 무려 107.1%에 달해 FTA 이후 수출이 급증함
 - 석유화학 품목의 터키측 관세 6.5%가 대부분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됨
-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FTA 관세 인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FTA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
 - 부품 공급 등이 장기 거래인 만큼 지금 당장 조달선이 바뀌지 않지만 FTA 혜택 등에 힘입어 한국產 조달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 분야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 등으로 다양해지는 가운데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
 - 우리 기업의 對터키 투자는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전문·기술 서비스, 출판·영상·방송통신 등으로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EU 수출을 위한 제조업 기지로서의 터키가 갖는 강점뿐만 아니라 전도 유망한 터키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한·터키 FTA 발효('13.5월) 이후 '13.8월부터 양국은 서비스·투자 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14년 상반기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의 對터키 진출 여건 개선 및 우리 기업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
- EU가 경기 침체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터키의 경제 회복도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한·터키 FTA 효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

<참고자료>

김재우,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Global Market Report, 2013.5. 13-037

이아름 외, “유망시장 터키, FTA로 활짝 열린다”,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3.4. Vol.12, No.22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GTA(<http://www.gtis.com/gta/>)

IMF(<http://www.imf.org/>)